



이야기 귀신이 와르릉와르릉

① 딱 하나만 들려주오 ② 날마다 살맛이 나네

천효정 글 · 최미란 그림

문학동네 | 초등 1학년 이상

책 소개

먹고 자는 것보다 이야기 듣기를 좋아해 온종일 새 이야기만 찾아다니던 아이가 영감의 이야기보따리에 오랫동안 갇혀 본모습을 잃은 이야기 귀신 여섯을 만나고, 그들의 한을 풀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랬다저랬다 헛갈리는 이야기, 시작은 거창했으나 끝은 미약한 이야기,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는 이야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이야기……. 어딘가 혈령해 보이는 이야기 귀신들이 아이의 입담으로 인해 몰라보게 재밌고 통찰 있는 새 이야기로 탈바꿈하는 과정이 담겨 있어요. 널리널리 퍼지고 오래오래 살아남는 이야기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활동1 이야기보따리를 펼쳐 보자

벽장에 처박혀 있던 보따리에서 온갖 이야기들이 와르릉와르릉 쏟아져 나왔어요.
그중 낡은 헌 이야기들을 아이가 하룻밤 새 뚝뚝 새 이야기로 지어냈어요.
어떤 이야기로 완성했는지 말풍선에 들어갈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말을 채워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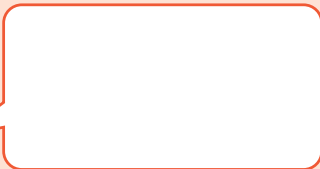
세상에서 제일 운 없는 사내

사는 내내 운이 없는 사내가 살았어.

이 사내의 취미는 딱 하나,
돌 구경이었어.



금덩이를 주워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사내는 한숨을 쉬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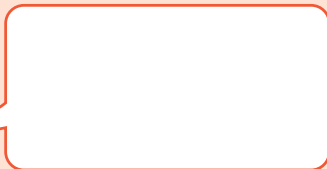


돌밭을 지키러 데려온 개까지 데리고 다녀야 했어.

그러다 사내는 산적에 잡혀가던
공주를 만났고, 얼마 후
임금이 되었어.



운 없는 임금은 개똥을 밟고 파당
하고서야 펄쩍펄쩍 뛰며 웃었대.



신기한 대나무 베개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잠 잘 자는 잠보가 살았어.

잠보는 잠이 솔솔 오는
대나무 베개 두 개를 만들었어.



온갖 이들이 잠보네 집에 잠을 자러 왔어.
누가 왔냐면 말이야.



심지어 저승사자도 왔는데,
잠보는 저승사자에게 따지기도 했어.



어느 밤, 달빛에 비친 자기
그림자가 베개를 베고
누워 있지 뭐야?

빨래꾼과 복복이

지넛골에 빨래를 기막히게 잘하는 빨래꾼이 살았어.

주워 온 알에서
희한한 소리로 우는 병아리가
나왔어. 복복이와 빨래꾼은
한 가족이 되어 살았어.



그런데 빨래꾼이 액막이로
뽑혀 지넛 골에 들어가게
되었네.

빨래꾼과 복복이가 백 년 묵은 지넛에 어떻게 맞섰는지 아니?



지넛은 숲덩이가 되어
바스러졌고, 황금빛
새가 하늘 높이 솟아
올랐단다.



청백리네 강아지

개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 나라에 개를 싫어하는 청백리가 살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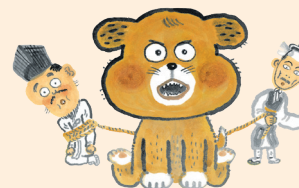
그런데 누군가
청백리집 앞에
개 한 마리를
놓고 간 거야.
주둥이 끝, 꼬리 끝,
네 발끝이
하얀 육백이야.



잠시 데리고 있으려다가
육백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지경이 되었지.



그러다 개법을
어겼다는 죄로
청백리가 임금
앞에 끌려갔는데,



육백이의 말을 듣고 임금이 탄복했어.
육백이는 스승보다 더 훌륭한 청백리가 되어 이름을 남겼대.

백두산 평평도사

생각을 평평하게 만드는 도술을 부리는 평평도사가 살았어.



평평도사는 다툼이 생기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더란다.



그런데 평평을 방해하는 흥흥한 힘,
삼딱이 눈앞에 딱 나타났어. 이를 어쩐다?



아이들의 외침에 주문을 도로 삼킨 평평도사 얼굴에
처음으로 평화가 깃들었어.

천하무적 싸리동자

싸리비를 들고 마당을 기가 막히게 쓰는 싸리동자가 살았어.



잘난 구석 없어
보이던 셋째였지만
비질에는 아주
도가 트게 됐지.



싸리동자는 싸리비를 들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
모조리 쓸어 버렸어.



싸리동자는 나라의 영웅이 되었어.
덕분에 오랫동안 이 나라는 참 살기 좋았다.

활동2 “댁들 사연을 들으러 왔소!”

이야기 좋아하는 아이가 똑딱 만들어 낸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
이야기를 곱씹으며 이야기 속에 담긴 생각을 알아보고, 내 생활이나 마음은 어떤지 살펴보세요.

사내는 운이 없는 걸까요,
운이 좋은 걸까요?



세상에서 제일 운 없는 사내

나는 어떨 때 운이 없다고,
혹은 운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잠보네 집에 온 손님들은
잠을 푹 자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나요?



신기한 대나무 베개

내게 잠이 솔솔 오는
대나무 베개가 있다면,
누구랑 같이 자고 싶나요?

빨래꾼은 어떻게 지네 굴에서
살아 나올 수 있었나요?



빨래꾼과 복복이

빨래꾼의 빨랫방망이처럼
내게도 소중한 물건이 있나요?

‘개는 개답게 먹게 하고, 개답게
놀게 할 것.’이라는 개법을
개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청백리네 강아지

내가 만들고 싶은 법과
법 조항을 써 보세요.

나는 평평이 좋아요,
안 평평이 좋아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백두산 평평도사

평평도술을 부리고
싶은 때가 있나요?

‘잘난 재주’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천하무적 싸리동자

싸리동자의 싸리비로
쓸어 버리고 싶은 게 있나요?

새 이야기 종을시고

여섯 이야기 귀신 중에서 이야기를 고쳐 주고 싶은 귀신을 골라 ☐에 ☒하고,
내가 새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대나무, 소나무,
아니 참나무 베개가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운이 참 없는데,
운이 참 좋은 사람이
있었던 말이지.

마당을 겁나
잘 쓰는 사람이 있었어.
이게 시시한 재주가
아니거든.



무시무시한 지네
동굴에 누가 잡혀갔겠어?
연약하고 가련한
소녀겠지!

어느 나라가
개판이었는데
개가 많아서 개판...

평평도사가 평평도술만
부리면 세상이 평평해져
평화가 찾아왔다. 끝!

제목: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이야기 속에 슬쩍 끼어든
삼백 년 동안 살았던 이름 없는
아이는 찾았니?

- 가장 재미있었던 이야기는 뭔가요?
-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나 사건은 뭔가요?
- 재미있는 표현을 찾아 옛이야기 들려주듯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